

第 24 课: 兴夫与游夫 흥부와 놀부

(1)

옛날 어느 마을에 흥부와 놀부라는 형제가 살고 있었다.동생 흥부는 마음씨가 곱고 착한 사람이었으나,형 놀부는 마음씨가 고약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형제에게 재산을 나눠 주었는데,놀부는 흥부가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빼앗고 집에서 내쫓아 버렸다.그러나 마음씨 착한 흥부는 빈손으로 쫓겨나면서도 형을 미워하지 않았다.

(2)

계속된 가뭄으로 흉년이 들어 살기가 너무 어려웠다.겨울이 되자 들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던 흥부네 가족은 거의 굶다시피 하였다.자식들이 굶는 것을 보다 못한 흥부는 자식들을 이 끌고 형의 집을 찾아가 형수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했다.그러나 놀부와 놀부 마누라는 화를 내며 흥부를 쫓아냈다.

(3)

그생스럽던 겨울도 끝나고 어느 덧 따뜻한 봄이 되었다.부지런한 흥부는 열심히 일을 히가 시직했고, 흥부네 집네는 제비 한쌍이 나아와 처마 밑에 집을 짓기 시작했다.제비들은 여기에서 알을 낳고 새끼를 길렀다.

어느 날 일을 하러 밭에 나가던 흥부는 제비집을 보고 깜짝 놀랐다.큰 구렁이 한 마리가 혀를 날름거리며 제비 새끼들을 잡아 먹으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다.깜짝 놀란 흥부는 들고 있던 지게 작대기로 구렁이를 쫓아버렸지만,제비 새끼 한 마리가 그만 따으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다.흥부는 부러진 제비 다리에 약을 바르고 형겅으로 매 주었다.

(4)

어느 덧 봄,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다.흥부네 집에 살던 제비 가족은 흥부 가족에게 작별 인사라도 하듯 마당을 한 바퀴빙 돈 다음 남쪽 나라로 날아가

버렸다.그 해 겨울에도 흥부네 가족은 먹을 것이 부족해 고생을 했다.

다음 해 봄이 되어 새싹이 돋고 진달래꽃이 필 무렵.지난 해 왔던 제비 가족이 다시 흥부네 집을 찾아왔다.제비 가족은 흥부에게 반갑게 인사를 한 후 흥부의 앞에 입에 물고 온 것을 떨어뜨렸다.그것은 박씨였다.흥부는 고마워하며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를 담 밑에 심었다.

(5)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 어느 덧 추석이 되었다.흥부네 집 지붕 위에는 보름달같이 둥근 박이 주렁주렁 열렸다.이웃집에서 추석 음식을 만드는 냄새가 담을 타고 솔솔 넘어왔다,그러나 추석 음식을 만들어 먹을 형편이 못 되는 흥부네 가족은 박을 따서 먹기로 했다.

"톱질하세,톱질하세.슬근슬근 톱질하세."

흥부네 가족은 흥겹게 노래를 부르며 박을 타기 시작했다.드디어 첫번째 박이 갈라졌다.그런데 박 속에서 나온 것은 뜻밖에도 금은보화였다.

"아니,이럴 수가."

흥부네 가족은 너무 놀라 자기 눈을 의심했다.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금은보화였다.두번째 박을 타자 여기서는 금돈.은돈이 쏟아져 나왔다,세번째,네번째 박에서도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왔다.그 날로 흥부는 큰 부자가 되었다.마음씨 착한 흥부에게 하늘이 큰 상을 내린 것이다.

(6)

흥부가 부자가 되었다는 수문이 삽시간에 퍼져 놀부의 귀에도 이 이야기가 들어갔다.

"아니,그 거렁뱅이 녀석이 나보다 더 부자가 되었다고?분명도둑질을 했을 거야 ,내가 이 녀석을 당장....."

머리끝까지 화가 난 놀부는 흥부의 집을 찾아갔는데.흥부의 집은 놀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훌륭했다.

멀리서 놀부가 오는 것을 본 흥부는 버선발로 달려나와 놀부를 맞이했다.

"형님,어서 오십시오.이게 얼마만입니까?"

착한 흥부는 놀부를 반갑게 맞이하고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장만해 놀부를 대접했다.그리고 자기가 부자가 된 경위를 설명해 주었다.

(7)

집에 돌아온 놀부는 흥부가 부자가 된 것이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그 날부터 놀부는 처마 밑에 앉아 제비가 땅에 떨어지 기만을 기다렸다.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제비가 떨어지지 않자 놀부는 일부러 제비 다리를 부러뜨린 후 치료해 주었다.

"너 이 은혜를 꼭 갚아야 한다."

가을이 깊어 제비가 돌아갈 때가 되자 놀부가 제비에게 말했다.

"네가 다리를 다쳐서 죽을 뻔했는데 내가 치료해 주었지?그러니까 내년 봄에 올 때는 박씨를 꼭 가져와야 된다."

(8)

이듬 해 봄,제비는 놀부가 그토록 기다리던 박씨를 물고 와 놀부 앞에 떨어뜨렸다.놀부와 놀부 마누라는 기뻐하며 박씨를 담 밑에 심고 박이 자라기를 손꼽아 기다렸다.여름이 지나자 놀부네 집 담 위에도 보름달같이 커다란 박이 여덟 개나 달렸다.놀부와 그의 아내는 이제 곧 큰 부자가 될 거라는 꿈을 꾸며 톱을 마주 잡고 박을 타기 시작했다.

"금덩어리,은덩어리 많이 많이 나와서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되었으면."

그런데 박이 갈라지면서 벼락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났다.

"금이야?은이야?"

그러나 안에서 나온 갓을 뜻밖에도 금이 아니라 몽둥이를 든 도깨비들이었다.

"네,이 놈 놀부야,불쌍한 제비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린 벌을 받아라."

도깨비의 무서운 모습에 놀란 놀부는 벌벌 떨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일부러 부러뜨리기는요.부러진 다리를 제가 고쳐 줬는데요."

놀부의 거짓말을 들은 도깨비들은 들고 있던 몽둥이로 놀부를 마구 때렸다.

"아이고,이 놈들이 살람 잡는다."

놀부는 조금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았다.

첫번째 박에서 나온 도깨비들이 사라지자 놀부는 다음 박에서는 금은보화가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두번째 박을 탔다.그러나 두번째 박에서도 세번째 박에서도 금은보화는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도깨비들만 나와 놀부의 집을 모두 부수고 집에 있던 물건들을 몽땅 가지고 사라졌다.

(9)

이제 놀부는 돈 한 톨 없는 거지가 되었다.그러나 면목이 없어 동생을 찾아가지도 못하고 있었다.놀부가 망했다는 소문을 들은 흥부가 놀라 놀부를 찾아왔다.

"아니,형님,이게 웬 일이십니까?저희 집에 가서 함께 사세요."

"흥부야,미안하다,내가 잘못했다."

"잘못하시다니요?앞으로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저희 집에서 함께 사십시오."

흥부의 착한 마음씨에 감동한 놀부는 그 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흥부와 함께 오래도록 우애좋게 살았다.

형겂 (名) 布鞋	톱 (名) 锯
처마 (名) 屋檐	톱질하다 (自) 拉锯
열리다 (自) 开	아깝다 (形) 可惜

심다 (动) 种, 植	마음씨 (名) 心眼儿
부러뜨리다 (动) 折断	어느 덧 (副) 不知不觉之间
주렁주렁 (副) 累累	제비 (名) 燕子
쌍 (名) 双, 对	작별 인사 (名) 道别
슬근슬근 (副) 不慌不忙	빙 (副) 旋转貌
벌을 받다 (词组) 受罚	박씨 (名) 瓜子
물다 (他) 叨, 衔	몽둥이 (名) 棍子, 棍棒
매다 (他) 背	때리다 (他) 打
대접하다 (自) 接待	달리다 (自) 跑
금은보화 (名) 金银财宝	구월이 (名) 莽, 阴险的人
거지 (名) 乞丐	목숨 (名) 生命
그만 (副) 到此为止	형수 (名) 嫂子
이끌다 (他) 拉, 带领	작대기 (名) 长竿
흥겹다 (形) 兴致勃勃	우애좋다 (形) 友爱, 友好
벌벌 떨다 (词组) 哆哆嗦嗦	면목이 없다 (词组) 无颜
몽땅 (副) 全部	마누라 (名) 妻子
혀를 날름거리다 (词组) 舌头一伸一伸的	쏟아갈이 (副) 飞箭般地
삼시간에 (副) 霎时间	벼락치다 (词组) 闪电般地
버선발 (名) 只穿布袜子 (不穿鞋)	무렵 (名) 时候
상다리가 휘어지다 (词组) 桌腿被压弯 (表示饭菜丰富)	기어 들어가다 (自) 爬进去
은혜를 갚다 (词组) 报答恩惠	사라지다 (自) 消失
그토록 (副) 那样地 (表示程度)	늪우치다 (他) 后悔, 悔悟

새싹이돋다 (词组) 长出新牙	감동하다 (自) 感动
지게 (名) 背架	물려주다 (动) 叨给
내쫓다 (他) 赶走, 驱逐	곱다 (形) 漂亮, 美丽
담 (名) 墙	갈라지다 (动) 分开
도깨비 (名) 鬼, 鬼怪	금덩어리 (名) 金块
들 (名) 田野	물려받다 (自) 继承
고약하다 (形) (味道, 气味, 性格) 非常坏	